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허 선사(3)

문되, 술이나 파전 먹고 싶으면?
답하되,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먹죠
말하되, 나 같으면 밀·파 농사 짓겠다

경허 선사가 청양(靑陽) 장곡사(長谷寺)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선사가 곡차를 잘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사람들이 곡차와 파전을 비롯한 여러 안주를 들고 왔다. 이것을 맛있게 먹다가 만공에게 물었다. "너는 술이나 파전이 먹고 싶은데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자 만공이 대답했다.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굳이 먹으려 하지 않지만, 생기면 또 굳이 먹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사가 대견한 듯이 보는 척 하다가 말했다.

"그래? 참으로 너의 도력(道力)이 대단하다. 근 분별심 없는 개천 삼강조



'평상심이 도' 한 차원 높여
분별심 없는 개천 삼강조

는대로 흐리멍덩하게 사는 게 절대 아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飢來喫飯 困來即眠)"는 말은 같지만, 법부의 일상사와는 다르다. 어쩌서 같지 않을까. 이에 대해 대주해해 선사는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마음으로 밥을 먹지 않고 온갖 단 것을 찾아 헤매며, 잠 잘 때는 천 가지 잡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같이 않은 것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다. 영흥 스님(진천 불뢰굴은 평상심이란 "다시 떠 마음 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각 없는 평상심이란 혼침이다"고 풀이했다.

평상심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고 무심(無心)이 되어 깨어있는 진지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매순간 대상과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평상심'을 실현하는 방법이 대담하다. 큰 깨어있는 진지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매순간 대상과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평상심'을 실현하는 방법이 대담하다. 큰

깨어있는 진지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매순간 대상과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평상심'을 실현하는 방법이 대담하다. 큰

가까이있는 진지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매순간 대상과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평상심'을 실현하는 방법이 대담하다. 큰

설거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일행삼매(一行三昧)가 된다

경허 스님처럼 늘 깨어있으면서도 일없이 한가로운 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안으로 닦고 밖으로 전해요”

居士禪의 리더들 ① 월담 이동호(전주내과의원 원장)

선종 불법(不二法門)의 연원이 라 할 수 있는 <유마경>을 보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물론 여러 보살들이 유마 거사(維摩居士)와 문답하면서 찢절 매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인도의 유마 거사 이후 중국에는 방(龐) 거사, 한국에는 부설(浮屠) 거사가 유마 거사로서 불법을 드날렸다. 이후에 고려의 청평(淸平) 이자현(李資玄), 조선의 원당(院堂) 김정희(金正喜) 거사가 높은 안목을 드러냈으며, 현대에도 백봉 김기추(1908-1986) 거사를 비롯한 여러 거사들이 재가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유마 거사의 자리에(自利利他) 정신을 이어받아 생활선을 선행하는 거사들을 만나 재가 선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생이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는 대승의 메시지를 남긴 유마 거사의 발원처럼 실제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불법을 전하는 이가 있다. 전주 이동호내과의원 원장 겸 대한태극권협회 회장으로 국민의 심신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월담(月澗) 이동호(李東豪·69) 거사가 그 주인공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위치한 내과의원 원장실에서 만난 월담 거사는 오랜 수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선기(禪機)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 진료실과 태극권 수련실, 병원 내에 설립한 한국동양학연구원 월담 거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차례 차례 둘러 보던중 12개 국어로 된 대장경과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학 관련 5만권의 장서를 갖춘 연구원의 규모에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국무술연합회 회장, 인상학원·인상미술고등학교 이사장, 원각정사 선원장, 등 10여개의 직함을 가진 월담 거사는 바쁜 단체 업무를 병행하며 진

료 시간 틈틈이 인터뷰를 하는데도, 대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졌다. 내방한 손님들 맞이하고 전화받고, 회의하고, 진료하는 그 바쁜 시간들이 무심(無心)으로 이어지면서도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한 것 같지 않다"는 월담 거사의 말을 듣고서야 고개가 끄덕여졌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일없이 한가한(無事閑) 도인'을 눈앞에서 목격할 셈이다.

19살 때, 아름다운 동네 누나를 짝사랑하면서 그 열병으로 도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월담 거사. 그가 서양철학, 기독교를



태극권 가운데 검술시범 장면.

광사에서 현공(玄空) 윤주일(尹柱逸·1895~1969) 법사를 만나면서 부터였다. 한용운, 백용성 스님의 감화를 받고 수행해 온 노 법사의 탁월한 법문을 듣게 되면서 월담 거사는 비로소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란 수행의 3요소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월담 거사는 화두 의심이 독로(獨露)되어 지나거나 화두(화두는 공개하지 않음)가 들리는 경지에 이르렀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화두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할 일이 생각나더라도 마음이 달라지 않았다.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걸림이 없었다.

그러나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 했던가. 이 체험 후 하루 건너쳐 곧 죽을 환자들이 병원에 들이닥치는 등 엄청난 마장이 들이닥쳤다. 경계가 크게 타격하자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한 감정의 흐름이 일었다. 그때서야 되는 보임(保任)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옛 선지식들이 돈오한 후 20~30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보



책 읽던 중 '성재하처(性在何處)? 성재 작용(性在作用)이 아니라' 하는 대목에서 눈이 번쩍 띄었다. '성품은 어느 곳에 있는가? 그 작용에 있다'는 뜻의 이 문구를 읽는 순간 머릿속의 의문과 번뇌가 모두 사라져 버리는 체험을 하였다. 그동안 은연 중에 분체가 현상 밖, 일상생활 밖의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문구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대목을 읽고 나서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었다. 어떤 할 일이 생각나더라도 마음이 달라지 않았다.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걸림이 없었다.

그러나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 했던가. 이 체험 후 하루 건너쳐 곧 죽을 환자들이 병원에 들이닥치는 등 엄청난 마장이 들이닥쳤다. 경계가 크게 타격하자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한 감정의 흐름이 일었다. 그때서야 되는 보임(保任)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옛 선지식들이 돈오한 후 20~30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보

58년에 화두가 타파되며 법안(法眼)이 열린 것이 이치에 걸림이 없는 '이무애(理無碍)'에 해당된다면, 78년의 개오(開悟)는 사무에(事無礙)에 해당된다는 게 월담 거사의 견해다. 즉 육조 스승인 깨달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의 도리에 계합되어, 일체의 사물에 걸림없이 자연스럽게 응하게 되는 경지이다. 보임을 통해 사무에를 뛰어 대도사가 되는 과정에 숙명통을 비롯한 신통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부처님과 같은 일체(一切)가 증득된다는 것이다.

월담 거사는 1900년대부터 워킹 메디테이션(Walking Meditation 行禪)이라 불리는 태극권 보급에 나서, 생활체육계에서 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양가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느긋하고 고요하게 하고 잡념이 사라지게 하며, 성품을 부드럽고 포용력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보급에 나선 것이다. 준비된 수행자와 지도자가 부재한 오늘날, 그는 불교 밖으로 '법의 그물(法網)'을 던지며 혼신을 다해 전법에 나서고 있다. (063)287-6932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e6@hanmail.net

두 차례 화두 타파로 '이무애' '사무애' 경지
윤주일 법사 사사...行禪 태극권 보급 앞장

비롯한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다 한계를 느끼고 비로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전남대 의대본과 1학년 재학당시 광주 중

었다. 길을 걷다 전봇대나 장애물에 부딪히곤 했기 때문이다. 1958년 8월 어느 날, 선정삼매 중에 홀연히 화두가 풀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무엇이든 보고 들으면 곧 이해되었다. 삼라만상이 그와 부합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제방의 선지식을 참방하기 시작했다. 전강 구산 고암 해안 청담서용 성철 월산 송담 청화 목담 일타·법전 스님 등 당대의 선사들을 뵈고 가르침을 받았다. 63년에는 순천불교선우회를 이듬해는 남원불교선우회를 창립했으며, 67년에는 한국대학생불교단체 지도교수회를 창립·발기했다. 75년에는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를 시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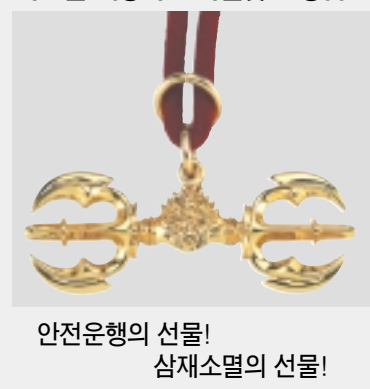
월담 거사는 39세 때, 간경삼매 중에 다시 한 번 돈오체현을 하게 된다. 어떤 불자가 병원으로 <보조어록>을 가져 왔는데,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열성적인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랑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tar21.com
E-mail: heegyun@avatatar21.com

수행기념판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한국위빠사나선원엔 3월 6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 오후 2~5시 '12연기법문과 위빠사나 수행반'을 모집한다. 등록금 15만원. (02)512-5258
정기철아침선
구미 금오산 인적사는 매일 첫째 주 다라나 주간, 둘째 주 <금강경> > 주간, 셋째 주 친척주강으로 정진한다. (054)431-1192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영주표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영주자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수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부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삼고금강저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제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벨트는 고급 천연소 가죽에 벨트메탈과 와 원적의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벨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데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환중이에 써서 기도하시고 신속에 문의하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흠 福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송나노 증지갑
여성용銀나노 증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모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나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모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지 나가지 않게하는 팔십삼보병관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금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지만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로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 증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나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알도 모르는 험한상사 남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법되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알도 모르는 험한상사 남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법되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